



홍콩반점 끌고 리춘시장 밀고 중식업계도 '더본코리아 천하'

2022년 중식업계 프랜차이즈 실적

중식 프랜차이즈 본사 전체 298개 중 가맹점 '제로' 158곳... 절반 넘는 수준 연간 매출액 100억 넘는 곳은 21개뿐 매출 없는 깡통 프랜차이즈 100개 넘어

더본코리아 매출 2632억 기록 업계 1위 매출액 증가율 전년 비 49% 고속 성장 명륜당 영업이익 증가율 82% 큰폭 올라 지연이자 20% 달하는 업체도 3곳 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중식 프랜차이즈 본사는 2022년 기준 총 298개다. 이 중 1개 이상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본사는 140개이며 나머지는 가맹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은 있지만 본사의 가맹점 평균 매출이 없는 깡통 프랜차이즈도 10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식프랜차이즈 298개 중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곳은 모두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중식 업계의 총 매출액 1위는 백종원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더본코리아'였다. 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0410'과 '리춘시장' 중식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보면 더본코리아가 상위 1위와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홍콩반점0410과 리춘시장인 것으로 보인다. 두 프랜차이즈는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똑같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9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명륜당'이 차지했다. 명륜당은 '명륜반점'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15.52%였다.

3위는 '데일리반점'을 운영하는 '기영에프앤비'로 9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7.31%이다.

4위는 디딤이엔에프 '공화춘'을 운영하는 '디딤이엔에프'로 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디딤이엔에프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9%로 매출이 감소했다.

5위는 '팔탄집'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로 53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름플러스도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12.8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2년 중식업계의 영업이익 1위는 '더본코리아'가 차지했다. 더본코리아는 233억 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전년 대비 37.68% 증가했다.

영업이익 2위는 81억 원을 기록한 '명륜당'이 차

2022년 중식업계 매출액·영업이익 상위 5개 업체

순위	기업명	매출액	순위	기업명	영업이익
1	홍콩반점0410 리춘시장	2632억	1	홍콩반점0410 리춘시장	233억
2	명륜반점	956억	2	명륜당	81억
3	데일리반점	927억	3	탕화콩푸마라탕	47억
4	공화춘	600억	4	43 Zhouzhuang(저우장)	37억
5	팔탄집	538억	5	무궁반점	36억

지했다. 명륜당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81.545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3위는 '탕화콩푸마라탕'을 운영하는 '한국탕화콩푸로' 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특히 전년 대비 111.57%라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마라탕은 중국 사천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향이 강하고 매운맛이 특징인데 탕화콩푸마라탕은 전세계 36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마라탕 프랜차이즈다.

4위는 '43 Zhouzhuang(저우장)'을 운영하는 '위벨로먼트'다. 위벨로먼트는 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31.28% 증가했다.

5위는 '무궁반점'을 운영하는 '한경기획'이 차지했다. 한경기획의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85% 상승했다.

매출액 3위를 기록한 기영에프앤비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29%로 감소했다. 4위를 기록한 디딤이엔에프는 영업이익의 적자가 지속됐고, 5위 다름플러스는 적자 전환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 △가맹점당 평균 매출 △지연이자 등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고려할 때 보는 지표들이다.

매출 상위 5위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를 보면 2022년 기준 리춘시장의 가맹점 수는 33개로 나타났다. 2020년 28개에서 2021년 37개로 증가했다

가 2022년에 다시 감소했다. 신규 개점도 2020년 23개에서 2021년 12개, 2022년 8개로 매년 줄었다.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도 2021년 4억2900만 원에서 2022년 4억1500만 원으로 줄었다. 면적(3.3㎡)당 평균매출액은 2021년 1000만 원에서 2022년 1100만 원으로 늘었다.

홍콩반점0410의 가맹점 수는 2020년 236개에서 2021년 269개, 2022년 278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규 개점은 △2020년 28개 △2021년 45개 △2022년 30개로 증가했다. 신규 개점과 비슷하게 계약해지 건수도 △2020년 5개 △2021년 12개 △2022년 21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당 평균매출은 2021년 6억6500만 원에서 2022년 6억2600만 원으로 줄었다. 면적(3.3㎡)당 평균매출액도 2021년 1880만 원에서 1860만 원으로 감소했다.

공화춘은 △가맹점 0개 △직영점 4개로 나타났다. 반면 명륜반점과 데일리반점은 △가맹점 0개 △신규 개점 0개 △평균매출액도 0원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반점은 본점도 0개이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잡혀있다. 예비창업자들이 보는 정보공개서가 빈껍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탕화콩푸마라탕의 가맹점 수는 △2020년 165개 △2021년 216개 △2022년 32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규 개점은 △2020년 47개 △2021년 106개 △2022년 87개를 기록했다. 계약해지와 명의변경은 0개를 기록했다.

가맹점당 평균매출은 2021년 3억5900만 원에서 2022년 4억2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면적(3.3㎡)당 평균매출액은 2021년 1700만 원에서 2022년 1600만 원으로 감소했다.

43 Zhouzhuang(저우장)과 무궁반점은 2022년 기준 가맹점수가 0개로 나타났다.

가맹 계약기간은 △리춘시장(최초 2년-연장 1년) △홍콩반점(최초 2년-연장 1년) △데일리반점(최초 2년-연장 1년) △명륜반점(최초 2년-연장 1년) △공화춘(최초 2년-연장 2년) △탕화콩푸마라탕(최초 1년-연장 1년) △무궁반점(최초 2년-연장 1년) △43 Zhouzhuang(저우장)(최초 1년-연장 1년)으로 나타났다.

지연이자율은 △리춘시장 15% △홍콩반점 15% △데일리반점 12% △명륜반점 20% △공화춘 15% △탕화콩푸마라탕 20% △43 Zhouzhuang(저우장) 20%로 나타났다. 지연이자율은 가맹점주가 물품 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하는 이자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지연이자 부과를 지적했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GS25는 9월 기준)까지 점주들에게서 걷은 지연이자 총 253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CU가 129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어 △GS25(54억3400만 원) △세븐일레븐(41억3800만 원) △이마트24(19억7500만 원) △미니ストップ(8억2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정위의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권고는 하지 않고 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위원회

01 상생협력

상생협력기금 운용
성과공유, 협력이익공유
소재·부품·장비 상생협의회

05 농어촌 상생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
농어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

02 상생거래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기업 간 거래공정화
상생결제 운용

04 기술보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
기술탈취 예방 및 사후구제

03 혁신성장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 개발·경쟁력 강화
해외 동반진출 지원

대한민국 상생협력 파트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